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음악의 신체표현 지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struction of the Physical Expression of Multicultural Music in Elementary School

조 순 이**

Suni Cho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동요 및 민요에 맞춰 신체표현 활동의 지도방안을 소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신체표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동요 및 민요에 따른 신체표현 학습 내용과 활동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동요인 ‘Indo eu’ 곡을 신체표현 활동 예시로 선정하여, 악기와 움직임을 통한 놀이-형태의 활동과 전통적인 춤-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 및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정규 음악수업 활동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지식과 연결되어 색다른 춤 동작이나 움직임의 방식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초등음악교육, 다문화 동요와 민요, 음악과 신체표현, 다문화 음악과 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guideline i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focusing on physical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multicultural nursery rhymes and folk songs in class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body expression and analyzed the body expression learning content and types of activities according to multicultural nursery rhymes and folk songs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and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do eu’, a Portuguese children's song was selected as a new example, activities in the form of play through musical instruments and movements, and guidance methods that can be expressed in traditional dance-style.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students will be connected to various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through regular music class activities,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different ways of dancing or moving.

Key words: elementary music education, multicultural children's songs and folk songs, music and body expressions, multicultural music and danc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ing of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19.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oann@cnue.ac.kr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ongji-ro 126, Chuncheon, Korea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음악교과에서 다문화 음악의 신체표현 또는 춤추는 활동의 지도방안을 소개하는 데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표현영역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4음01-02]과 [6음01-02]에서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악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하는” 활동을 위해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도 “신체를 활용하여”, “신체로 표현한다.”와 같은 내용이 진술되고 있지만, 지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시되지 않았다. 즉,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 관련 활동을 위해 교사는 대부분 지도서에 제시된 동작의 안내 또는 부연 설명을 참고하거나 교사의 개인적인 관심과 재량에 맡겨진 까닭에, 학생들의 신체표현 학습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은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세계 음악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여 학년별 내용 체계에 “다른 나라 동요(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노래 부르기” 활동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악곡 선정과 지도 방법에 논의가 이뤄졌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에 대해 강조되면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당위성이 확고해졌다. 현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 중에서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위해 음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음악과 목표 중에서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학년별 성취기준에서도 “다양한 음악 경험”,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학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음악 관련 단위 또는 제재 중심으로 표현, 감상 및 생활화 영역의 활동을 통해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다.

다문화 음악 및 다문화 음악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분석연구가 눈에 띄는데, 최은식(Choi, 2020)은 1992년~2019년까지 약 3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총 106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의 물적 대상은 교과서, 인적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31.1%(33편)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서를 포함한 문서자료의 분석이 30.2%(32편)로 자료개발 연구와 거의 같은 빈도로 연구되었다고 한다. 오지향과 조혜윤(Oh & Cho, 2019)은 초·중등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학습 내용 분석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실생활 중심의 학습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대상과 교수·학

습 자료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지만, 그럼에도 다문화 음악의 신체표현 지도를 위한 악곡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에 한국에서의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지구공동체적 입장에서 인류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악곡의 선정이나 지도방법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Min, 2009)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신체표현의 의의와 음악교수법에서 신체표현의 중요성을 다룬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 다문화 악곡을 위한 신체표현 수업모형을 개발한 다음, 초등학생이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다문화 음악의 신체표현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신체표현 활동의 효과적 학습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첫째, 음악교과서에서 다문화 악곡의 신체표현 수업 활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악곡의 신체표현 활동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다문화) 음악과 신체표현 활동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음악을 지도하는 방안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자들은 익히 교육과정의 강요한 비중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주대창과 조효임(Ju & Cho, 2004)은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소위 ‘외국 곡’이라고 표기된 악곡을 통해 다문화적 접근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소년 한스’, ‘수건 돌려라’, ‘체체 쿨레이’, ‘카로부쉬카’, ‘체키모레나’ 곡들이 음악과 놀이 및 춤의 통합 활동으로 수업이 구성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방금주와 김용희(Bang & Kim, 2007)는 통합학습 모형, 맥락학습 모형, 조사학습 모형, 정의적 학습모형의 네 가지 학습모형들에 따라 중국 조선족 음악을 수업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면서 조선족 엔벤의 ‘기차놀이 하자야’를 춤, 노래, 그림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합하는 수업을 제안하고 교사가 우리나라의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처럼 율동을 지도하는 일명 기차놀이 동작을 소개하였다.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수·학습 지도안도 개발되었는데, 박주만(Park, 2015)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몽골 민요를 활용한 다문화 음악수업을 위한 활동에서 신체표현과 연계하여 지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통영

개타령'(손 유희 동작하며 노래 부르기), 중국의 '디우서우취안'(신체표현 하며 노래 부르기), 태국의 '창'(노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 하기), 필리핀의 '사라라랑블락락'(노래 부르며 손뼉으로 리듬꼴 치기)과 같은 제재곡이 활용되었다.

최미영(Choi, 2008)은 초등음악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체표현 활동으로 일정박, 강약, 리듬꼴, 심표가 있는 리듬꼴, 여린내기, 변박자, 셈여림, 스타카토에 대한 음악적 개념의 이해와 지휘, 국악장단, 감상, 가락창작과 같은 표현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기본동작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소개하였다. 장은연(Chang, 2015)은 학교음악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합창지도를 위해 주제별로 6단계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는데, 발성연습에서 신체의 움직임임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윤관기(Yun, 2019)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서양곡 중심의 감상활동에서 다른 예술 영역인 춤과 연계된 활동 비중은 3~4학년의 경우 20.8%, 5~6학년의 경우 9.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 연구물들을 통해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악곡의 신체표현 및 춤 활동에 동작의 표현, 노랫말 의미에 따른 율동, 악곡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놀이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의 신체표현과 춤의 교육적 의의

성장기 어린이들은 움직임이 많다. 그들에게 움직임이 없는 교육이란 상상할 수 없다. 특히 낮은 학령의 어린이일수록 움직이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긴 시간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수업에 집중하라는 무언의 자세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업이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진행되면 대개 어린 학생들은 서서히 불안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비록 주기적인 휴식시간이 주어지지만 충분한 움직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우 적극적으로 음악을 느끼게 하고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이 특히 신체를 동반한 음악수업을 경험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무적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혼자서 또는 그룹을 통해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서 신체 부위를 두루 활용하여 크고 작은 동작을 시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 방식을 익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용기, 인내, 정체성 유지, 유연성, 창의성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사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표현방식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험을 터득해 간다. 춤이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자유로운 방식을 따라 음악과 함께 활동하는 구조화된 움직임이다(Maruhn, 1997, p. 170). 특히 다문화 음악에 맞춰 춤추는 활동은 악곡과 문화적 배경지식과 연결되어 색다른 춤 동작이나 움직임

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여기서 상이한 낯선 문화에 집중하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통해 즐거운 기억을 가짐으로써 낯선 것에 대한 경계보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스라엘 또는 독일 등 각국의 전래동요 또는 민속춤에 맞춰서 표현할 때 단순한 걷기 동작이라 하더라도 그 춤사위 또는 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민속놀이(춤) 경우는 다양한 공간형태와 대형의 구성을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학생들은 다문화 음악의 소위 다양한 박자 종류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박자의 음악에 맞춰 다양한 공간에서 움직이며 즐기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음악과 문화에 대해 마음을 여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공감과 존중하는 마음을 더하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물론 음악에 맞춰 신체표현과 춤을 추는 활동은 초등학교의 모든 연령층에서 가능한데, 악곡은 안무나 춤-동작 및 대형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춰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움직임 표현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동작과 동선을 단순화시키거나 자신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손쉬운 동작을 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듯 노랫말의 의미, 악곡의 특징 등의 음악적 현상을 자신의 몸으로 익히고 동작으로 표현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좋은 경험이 각자에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교사는 특히 학생들이 즐겁고 기쁘게 음악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수업에서 원칙적으로 움직임과 음악의 하나-됨에 중점을 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하나는 어린이들이 움직임에 아주 충동적이면서 또 움직임에서 얻는 기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악 자체가 공히 인간의 신체, 감정 그리고 인식능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음악과 연계하여 신체적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모방하면서 자신을 계발할 수 있다. 게다가 음악과 움직임을 연결시키는 수업은 학생들이 사회성, 곧 서로 간의 교제와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식들에 대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타인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 및 친화력을 키워준다.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들에게 이 같은 수업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춤은 그런 취지에 적합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춤은 특히 원숙한 언어적 표현능력을 전제하지 않고도 이웃하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패턴이 갖는 고유한 특성 자체가 이미 학교에서 신체적 움직임과 음악의 연계 수업방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근거로서 충분하다. 사실 음악 자체도 그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음악은 신체활동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과 움직임은 단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

다. 그 연계성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음악이 인간 ‘내면의 흐름(*innere Bewegtheit*)’을 지속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곧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는 음악을 통해 내면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북돋아 준다. 다양한 가능성들 안에서 학생들이 움직임을 통해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초등학교에서 춤을 가르치는 목적이다 (Große-Jäger, 1992, p. 6).

3. 음악교수법에서의 신체표현

20세기 음악교수법에서 신체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자로 자크-달크로즈(*É. Jaques-Dalcroze*, 1865~1950)와 칼 오르프(*C. Orff*, 1895~1982)를 들 수 있다. 자크-달크로즈에게 음악과 움직임 표현을 엮을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아피아(*A. Appia*)는 “소리를 잃어버린 예술 음악 영역 안에서 이제 가시적인 표현만이 하나의 새로운 미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Appia, 1906; Min et al., 2010, p. 211에서 재인용)며 리듬교육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자크-달크로즈는 음악을 신체로 표현하도록 하는 자신만의 교육적 시도를 끊임없이 해온 결과, 그의 저서 『리듬체조』(1906)와 『리드믹』(1916/1917)에서는 음표와 쉼표의 음가에 따라 머리,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통한 기본동작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예시로 음가에 맞춰 충분하고 정확히 걸을 때 팔-동작이 추가되는데 처음엔 한 팔, 점차 두 팔을 사용하여 박자짓기 같은 동작으로 표현된다. 즉, 노래하면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은 박자, 셈여림, 강세 및 프레이즈와 같은 음악적 요소가 움직임과 연결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크-달크로즈의 교육 이념과 교수법에 대해 정리된 책으로는 『리듬, 음악과 교육』(1921)을 들 수 있는데, 거기서 저자는 유리드믹스(*Ehrhythmic*), 솔페즈(*Solfège*), 즉흥연주(*Improvisation*)에 대해 각각 22가지의 지도 요소와 방법에 대해 밝힌다(Min et al., 2010, pp. 213-217). 유리드믹스라는 용어는 ‘좋은 리듬(*Eurhythm*)’을 강조한 의미로 “리듬이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자 근본요소”(Rim et al., 2009, p. 18)이고, 움직임이란 ‘원-리듬(*Urrhythm*)’에 좌우되며, 이 원천적인 리듬을 호흡으로 간주한다. 호흡의 흐름 속에 서로 다른 에너지가 있는 박들로 구성된 것이 박자이다. 이러한 유리드믹스 활동은 교육적으로 신체의 리듬 감각능력과 리듬 청음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Min et al., 2010, p. 218).

오르프는 새로운 형태의 체조와 움직임 및 춤을 음악과 결합하여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귄터(*D. Günther*)와 함께 “귄터학교”를 세웠는데, 오르프가 특히 음악을 위한 신체표현 및 춤을 위한 음악교육에 확신을 갖도록 고무시킨 빅만(*M. Wigman*)은 당시 유명한 무용수였다. 몸의 움직임이 음악을 이끌고, 때론 즉흥으로 무대에서 직접

연주되는 타악기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빅만의 예술처럼, 오르프는 춤과 타악기의 결합이 음악교육의 과정에서 훈련되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음악과 춤을 위한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민속)타악기와 선율을 담당할 악기들을 발굴하고 개조하여 교육용 악기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렇게 권터학교에서는 크게 기본체조 훈련과정, 리듬-체조 훈련과정, 춤 훈련과정을 마련하여, 리듬-체조 훈련과정에서 타악기 앙상블 즉흥연주, 피아노와 리코더 즉흥연주, 리듬학, 합창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했다(Min et al., 2010, p. 255). 오르프는 거기서의 경험을 살려 1930~1933년에 걸쳐 게재한 4편의 소논문을 통해 음악교육의 기본 철학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누구나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음악(Urmusik),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놀이식 활동, 원초적인 악기(신체악기)부터 자연스럽게 일반악기로의 학습전개,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반향 되는 즉흥연주를 목표로 삼는 음악수업 그리고 지휘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르프 악기에 타악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춤과 관련된 음악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권터학교의 졸업생으로서 모교 교사가 된 케트만(G. Keetman, 1904~1990)은 오르프의 동료가 되어 교육용 작품 모음집 『오르프-슐베르트, 어린이를 위한 음악』(1950~1954)을 공동 집필하였다. 즉흥으로 실험하고 연주했던 많은 전래동요와 악곡, 리듬과 선율을 위한 연습곡들을 수록하였다. 오르프-슐베르트에는 정해진 동작이나 안무가 표기되어있지 않은데, 이는 누구나 자신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다(Rim et al., 2009, p. 156).

자크-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와 오르프 신체표현에 적용되는 기본동작은 크게 몸의 중심축이 공간을 이동하는 걷기, 달리기, 기어가기, 뛰기, 꺾로핑, 홉핑, 특별한 춤의 스텝 등의 이동 동작과 구부리기, 뺏기, 밀기, 당기기, 흔들기, 꼬기 등 제자리에서 신체 일부만을 움직이는 비이동 동작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신체 일부를 소리 내지 않게 움직인다거나, 다양한 표정을 짓거나, 신체 일부를 부딪쳐 소리 내게 하거나, 걸음걸이의 종류, 춤의 공간적 모양새, 춤의 형태 및 손잡는 유형들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반주 또는 무반주로 표현될 수 있다(Rim et al., 2009, pp. 194-195). 신체의 움직임과 춤을 위한 연습은 신체에 대한 자각 및 감각활동이 선행 및 동반되어야 한다.

4.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음악의 신체표현 활동 내용 분석

새로운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소개된 다문화 악곡 중에서 기존하는 신체표현 활동 내용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3~4학년군부터 5~6학년군까지 저술된 7종의 출판사(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의 음악

교과서 28권을 분석하였다. 이때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가 표현영역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권의 동요와 민요 제재곡에 한정하여 몸으로 하는 놀이, 손뼉치기 등과 같은 신체표현, 노랫말의 (율동)표현 및 안무 동작을 살폈다. 현행 초등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악곡과 신체표현 활동을 출판사/ 학년/ 악곡명/ 나라명과 악곡종류/ 활동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금성/3학년/에이아 마코/ 미국동요/홀라춤 추기
- 금성/3학년/체체쿨레/가나민요/머리어깨무릎발 두드리는 신체표현하기
- 금성/3학년/모여 모여 춤추자/이탈리아 민요/노래부르며 춤추기
- 금성/5학년/파파야 나무를 흔들자/ 자메이카 민요/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표현하기
- 금성/6학년/허시 리틀 베이비/ 미국 민요/손뼉무릎치기

- 동아/3학년/리자로 끝나는 말은/미국동요/손뼉치기
- 동아/3학년/체체쿨레/가나 민요/머리어깨무릎발 등을 두드리는 신체표현하기
- 동아/3학년/꼬마 기차놀이/영국 노래/원으로 서서 기차놀이 동작 표현하기
- 동아/4학년/친구를 찾아라/중국 동요/짹과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표현하기
- 동아/5학년/시마마 카/탄자니아 동요/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표현하기
- 동아/5학년/체키 모레나/푸에르토리코 민요/노래를 춤으로 표현하기
- 동아/5학년/툼 발랄라이카/러시아 민요/노래에 맞춰 3박자 무릎, 손뼉치기
- 동아/6학년/라 라스파/멕시코 민요/짹과 노래에 맞춰 신체표현하기

- 미래엔/3학년/체체쿨레/가나 민요/머리 어깨 엉덩이 무릎 발 표현하기, 손뼉치기
- 미래엔/3학년/꽃은 지고/필리핀 민요/술래 놀이하기
- 미래엔/3학년/아씨트론/멕시코 민요동작하기
- 미래엔/3학년/꼬마 기차놀이/영국 노래/기차놀이하기
- 미래엔/4학년/코끼리/태국 동요/노래에 맞춰 짹과 손뼉치기
- 미래엔/4학년/좋아 좋아/몽골 민요
- 미래엔/5학년/푸에르토리코 민요/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표현

- 비상교육/3학년/안녕/프랑스 민요/돌림노래 부르며 어울리는 신체표현
- 비상교육/3학년/수진돌려라/중국 민요

- 비상교육/3학년/수건 돌리는 놀이하기
- 비상교육/3학년/넙비, 넙비, 밑바닥이 없는 넙비/일본 민요/원으로 앉아서 놀이하기
- 비상교육/3학년/난 산이 좋아/미국 동요/음높이에 따른 신체 표현하기
- 비상교육/3학년/시마마 카/탄자니아 동요/노랫말에 따라 신체 표현하기
- 비상교육/4학년/어서 오세요/터키 민요/노랫말에 맞춰 춤추기
- 비상교육/4학년모두 모여 춤추자/이탈리아 민요/짜과 춤추기
- 비상교육/5학년/살리보나니/짐바브웨 민요/노래에 맞춰 걷다가 친구와 손뼉치기
- 비상교육/5학년/파파야/자메이카 민요/노랫말에 맞는 신체표현
- 비상교육/5학년/카홀리 아쿠/ 하와이 민요/노랫말에 맞는 신체표현하기
- 비상교육/6학년/레썸피리리/네팔 민요/스카프를 이용하여 신체표현
- 비상교육/6학년/에 파파 와이아리/뉴질랜드 민요/마오리족 막대 놀이하기
- 비상교육/6학년/바하이 쿠보/필리핀 민요/필리핀의 막대 놀이하기

- 천재교육/3학년/수건 돌려라/중국 동요/원으로 앉아서 수건돌리기 놀이
- 천재교육/4학년/아비농 다리 위에서/프랑스 동요/원으로 서서 춤추기
- 천재교육 /5학년/코로부시카/러시아 민요/민속춤 동작익혀 춤추기
- 천재교육/6학년/잠보 브와나/케냐 민요/노래에 맞추어 짜과 신체표현하기
- 천재교과서/3학년/안녕/프랑스 동요/손뼉무릎치기
- 천재교과서/3학년/오리/독일 민요/걷기
- 천재교과서/3학년/딱따구리/체코슬로바키아 민요/손뼉 발 손가락 튕기기
- 천재교과서/4학년/난 꽃이 좋아/영국 민요/돌림 노래 부르며 신체표현
- 천재교과서/4학년/풍가 알라피아/나이지리아 민요/환영하는 마음을 신체표현
- 천재교과서/5학년/바누와/라이베리아 민요/손과 발을 이용한 신체표현, 아프리카 노래의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하기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3~6학년군 7종을 살펴본 결과 3~4학년군부터 5~6학년군까지 다문화 동요 및 민요를 신체로 표현하도록 제시된 악곡 수가 전혀 없는 출판사는 와이비엠이었다. 금성 출판사는 3, 5, 6학년에 걸쳐 총 4개의 곡을, 미래엔 출판사는 3, 4, 5학년에 걸쳐 총 7개의 곡을, 천재교과서 출판사는 3, 4, 5학년에 걸쳐 총 6개의 곡을, 동아와 비상교육 및 천재교육 출판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각, 8곡, 13곡, 4곡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악곡으로 신체표현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빈도수가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다. 악곡의 종류로는, 신체표현 활동이 안내된 총 42곡 중에 11곡은 동요, 나머지 31곡은 민요에 해당한다. ‘체체쿨레’가 3곳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었

고, ‘예파파’, ‘파파야’, ‘시마마카’, ‘체키모레나’, ‘수건돌려라’는 각각 2곳의 음악교과서에서 제시되었다. 나라별로는 아메리카(미국(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자메이카), 아시아 8개국(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네팔, 태국, 터키, 필리핀),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아프리카(탄자니아, 가나, 짐바브웨, 케냐,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오세아니아(뉴질랜드)로 분포되었는데, 아시아 동요와 민요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신체표현 활동유형으로는 크게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Music	Body movements	Material
Multicultural children's songs and folk songs	Dance to the song's	Scar, towel, bar, flower necklaces, etc
	Clap hands, clap knees, stomp, etc	
	Play folk games	
	Folk dance	

[Figure 1] Physical expression activity type

다양한 문화권의 동요와 민요를 노래 부르면서 노랫말에 어울리는 동작을 표현하는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리듬이나 가락의 흐름을 손뼉치기, 무릎 치기, 발구르기처럼 신체의 일부분을 두드리는 신체타악기 활동으로 나타났다. 민속 놀이를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수건, 막대, 스카프 등을 이용한 놀이 방법과 동작에 대해 삽화나 그림으로 제시하여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이아 마코’, ‘코로 부시카’, ‘아비농 다리 위에서’ 노래의 경우 본디 민속춤을 추는 활동인데, 노랫말을 율동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민속춤을 추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상이 다. 민속춤 동작에 대해서도 삽화, 사진 또는 그림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노랫말의 율동이나 춤 동작의 표기 방식은 악보의 가사 또는 마디 단위로 글로 설명하거나, 삽화, 사진,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III. 지도방안 예시

1.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춤곡 수업의 설계 원리

다문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활동은 특히 악곡과 문화적 배경지식과 연결되어 색다른 춤 동작이나 움직임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앞에서

밝혔다. 하지만 현행 음악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 동요와 민요의 노랫말에 어울리는 율동을 하는 활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적인 정보를 얻고 정서를 체험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문화 춤곡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의미를 두고, 다문화 동요와 민요를 자국어로 의미를 살려 노래 부르는 활동 못지않게 문화적 소통과 음악적 즐거움을 공유할 다양한 춤곡의 발굴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다문화 음악교육과 신체표현 활동에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 수업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의 음악과 신체표현 연구자인 그로쎔-예거(H. Große-Jäger, 1992)의 신체표현 지도 원리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 설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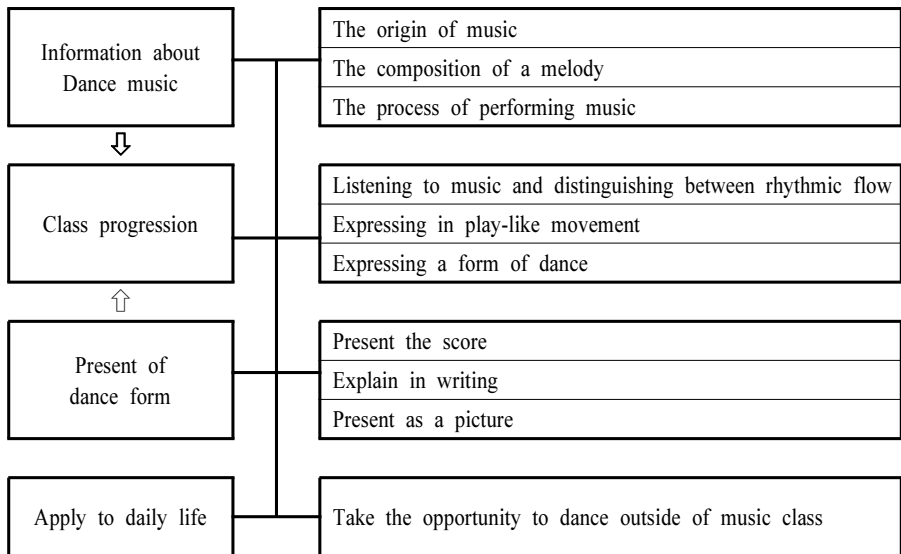
첫째, 신체표현 또는 춤추는 음악의 유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우리가 오늘날 어린이들과 함께 추는 춤들은 다양한 민족들에게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다양한 춤들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교댄스에서 유래한 것도 있다. 춤의 유래에 관한 단원에서 교사는 그때마다 그 춤의 원천적인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려주고 활동 수업 중에 그 이해가 병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춤의 형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시한다.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는 대부분은 원래의 춤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의 신체 및 이해능력에 알맞게 변형시킨 것들이다. 춤의 유래와 함께 교사는 원래의 춤 형태에서 일부 변형시키는 이유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화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목표를 두고 있는 춤의 형태를 표시한다. 춤이 어떠한 동작과 대형으로 진행되는지 표시할 방법은 글, 그림, 사진, 삽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된 춤-모양을 그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음악적 요소(악보)와 함께 배치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방식은 일종의 안내판처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의 기억을 지지해주는 점에서 그 수업전체를 일별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춤곡 수업모형

상기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춤곡 수업의 설계 원리를 근거하여 다문화 춤곡 수업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의 [Figure 2]와 같다.



[Figure 2] Instructional model of multicultural dance music

첫째, 음악의 유래: 춤과 연계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폭넓게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특히 민속춤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다양한 전통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학교에서 결국 과거(전통) 및 옛 사람들과 교류하는 셈이다.

둘째, 가락의 구성: 춤곡의 리듬과 가락은 춤추는 자세와 스텝을 결정해준다. 모든 노래의 가락은 악곡의 마디, 단락, 프레이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가락의 흐름이 변하면 춤의 자세와 동작도 바뀐다. 그런 이유로 춤을 이끄는 교사는 악곡의 구성에 대해 사전에 잘 파악하고 학생들이 음악을 분명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음악의 연주 과정: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혹은 음원을 활용할 경우 음악의 연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악곡의 형식에 따라, 또한 연주되는 순서와 횟수에 따라 춤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주, 1절, 간주, 2절, 후주 순서로 연주되는지 또는 5절까지 연주되는지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춤의 흐름과 과정이 쉽게 기억될 수 있다.

넷째, 음악 듣고 가락의 흐름 구별하기: 전통적인 춤곡은 꽤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져오면서 개별적인 민속음악가나 교사에 의해 개인적인 용도에 맞춰 기보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바에 따라 가락이나 악곡의 길이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전해져온 악보의 정보를 통해 배경이나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겠지만, 무엇보다 음악을 들으면서 춤동작이 추가되었을 때 춤추는 사람 자신이

그 노래를 계속 이어 부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놀이 형태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춤 동작을 학습할 때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발견하고 자주 취하는 움직임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다양한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듯이, 교사는 단계를 두어 천천히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춤추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령과 그룹별 교육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 진행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춤곡을 듣고 저마다 자유롭게 동작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수업의 방법과 진행이 교사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여섯째, 춤의 형태가 되도록 표현하기: 학생들이 다문화 동요나 민요에 맞춰 추는 춤 형태는 대부분 전통적인 원래의 춤 형태를 따라서 학습하는 기회이다. 하지만 호기심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종종 새로운 춤 형태가 발견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단호하게 어느 일정한 춤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흥미가 유발되고 교사와 도움과 함께 춤 형태가 점점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더욱 소중하다.

주어진 수업 시간 동안 다문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수업의 단계별 흐름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과정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 노래를 부르거나 귀로 들으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 그 음악의 부분들을 그때마다 구별되는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 그 음악에 맞춰 적합한 움직임을 표현하면서 찾아가며 중요한 움직임들을 선정하며,
- 교사의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선정한 움직임들을 더 의미 있게 확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 학생들이 착안한 움직임들과 교사가 보충적으로 지도해준 것들을 결합시켜 완성된 한 가지 춤 형태를 다 함께 추도록 한다.

일곱째, 음악수업 밖에서의 춤추는 기회 갖기: 정규 음악수업에서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한다. 물론 학교생활 중에 다 함께 춤추는 활동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운동회나 개교기념일 등의 학교행사나 학급 단위의 발표회 혹은 여가활동 중이나 특별행사에 다 함께 춤추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다.

3. 다문화 춤곡의 수업방안 예시: ‘Indo Eu’(태양의 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춤곡 수업모형에 따라 구성한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음악수업에서의 활동 예시로 ‘Indo Eu’ 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Indo Eu’는 포르투갈어인데,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인도 에우]라고 발음되지만, [에.]가 입모양을 옆으로 벌린 발음인 [이]에 가깝다. 이 곡은 일명 ‘태양의 춤’이라는 부제가 붙는데, 태양처럼 원형으

로 춤을 추는 동작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 소개하는 ‘Indo Eu’ 곡의 수업 내용과 방법은 그로썬-예거가 제안한 놀이 형태의 활동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악보와 삽화는 연구자가 직접 그렸고, 지도 내용은 분량과 활동면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pp. 28-31). 이울러 같은 곡인데 이희숙과 인혜 로젠슈타이너가 편역한 『어린이를 위한 음악과 춤 교재』에도 ‘인도 오이’(독일식 발음)라는 곡목으로 악보, 음악의 진행과정, 놀이형태, 전통적 춤 형태를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춤 형태의 서술 내용을 참고하여 소개한다(Funk et al., 2013, pp. 214-215). 음원은 각종 음원사이트 또는 유튜브에서 Indo Eu(Sonnentanz) · Hermann Große-Jäger로 검색하면 다양한 연주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음원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곡을 선정하는 의도는 현행 초등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동요와 민요를 활용한 신체표현 관련 제재곡을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동요를 춤으로 표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데 있다.

1) 춤곡의 사전 정보

(1) 악곡의 유래

‘Indo Eu’ 곡은 포르투갈의 전래동요이고, 1976년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노래의 가사에는 무용수가 되길 바라는 한 소녀의 꿈이 담겨있다. 포르투갈 도시 중 하나인 Viseu[비제우]로 가는 길이며, 그 도시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길 희망한다(Große-Jäger, 1992, p. 28). 처음의 노랫말 “Indo eu”는 영어로 직역하면 “going me”이고, 우리말로는 “내가 간다”, “나는 너에게 간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렇게 첫 가사가 곡명이 되었다. 포르투갈어의 가사(원어)와 우리말 번역(해석)은 아래와 같다.¹⁾

1절: Indo eu, indo eu / A caminho de Viseu / Indo eu, indo eu / A caminho de Viseu /
Encontrei o meu amor / Ai Jesus, que lá vou eu / Encontrei o meu amor / Ai Jesus,
que lá vou eu! (Refrão) Ora truz, truz, truz, / Ora tráz, tráz, tráz, / Ora chega, chega,
chega / Ora arreda lá p'ra trás

2절: Indo eu, indo eu / A caminho de Viseu / Escorreguei, torci um pé / Ai que tanto
me doeu! / (Refrão)

1) 출처: Retrieved 01.12.2020, <https://www.mamalisa.com/?t=es&p=295>. ‘Indo eu’ 악보는 전래동요의 특성상 사이트 또는 악보집마다 리듬꼴이나 가락이 조금씩 다르다. 소개한 사이트의 악보에서는 4/4박자, 가락의 시작되는 계명이 ‘도미솔라라솔 레미파파파미 ... 도미레도시,라,솔,파파미미레레도’이고, 그로썬-예거와 이희숙 외 악보집에는 2/4박자와 계명이 ‘도미솔솔솔솔 레미파파파파미 ... 도미레도시,라,솔,파파미도레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로썬-예거가 제시한 악보를 사용하였다.

3절: Vindo eu, vindo eu / da cidade de Viseu / Deixei lá o meu amor, / O que bem me aborreceu! / (Refrão)

1절: 나는 가요, 나는 가요 / 비제우로 가고 있어요. / 나는 가요. 나는 가요. / 비제우로 가고 있어요. / 제 사랑을 만났어요. / 오, 주여, 그곳으로 가요. / 제 사랑을 만났어요. / 오, 주여, 그곳으로 가요. (후렴) 이제는 툭, 툭, 툭, / 이제는 팡, 팡, 팡, / 이제는 도착, 도착, 도착, 이제는 저쪽 옆 뒤로 떨어져

2절: 나는 가요, 나는 가요 / 비제우로 가고 있어요 / 미끄러져서 발을 삐끗했어요 / 많이 아파요. (후렴)

3절: 나는 (돌아)와요, / 나는 (돌아)와요 / 비제우 도시에서 / 내 사랑을 그곳에 두고 /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후렴)](우리말은 연구자의 번역)

(2) 가락의 구성

‘Indo eu’의 가락은 8마디로 된 두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락을 A와 B로 표기한다. 각 단은 다시 4마디로 이루어진 2개의 악구로 짜여있다. 그래서 가락을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박자의 일정박을 손뼉치기하면서 리듬 반주가 이어지도록 한다. 포르투갈의 전래동요이다 보니, 가사를 확인했던 사이트에서 가락의 일부분이 다르게 기보된 악보가 발견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악보를 마련할 수 있다.



[Figure 3] Indo eu

(3) 음악의 연주과정

여기서 음악의 진행이란 음원에 수록된 연주의 순서가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말한다. 본 제재곡의 음원은 Große-Jäger의 연주 순서를 예시하기로 한다. 전주는 4마디이며, 음악이 진행되는 순서별 과정에서 A가락과 B가락은 동일하게 8마디이다. 가락을 연주하는 악기로는 플루트(Flöten, 이하 Fl.)와 크롬호른(Krummhorn, 이하 Kr.)인데, 크롬호른은 굽은 뿔모양의 나무로 만든 옛 호른의 일종으로 독특한 음색이 매력적이다. 부드러운 호른과 음색이 상대적으로 더 밝게 느껴지는 크롬호른이 연주하는 AB가락의 연주과정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Indo eu’ performance process

Prelude	Process 1		Process 2		Process 3		Process4		Process 5		Process 6	
4 bars	A (8 bars)	B (8 bars)	A	B	A	B	A	B	A	B	A	B
	Fl.	Kr.	Kr.	Fl. Kr.	Fl.	Fl.	Kr.	Fl. Kr.	Fl.	Fl.	Kr.	Fl. 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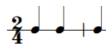
* 2, 4, 6과정에서 음색이 변환을 볼 수 있는데, A가락이 크롬호른에 의해 연주되어서이다. 동일한 가락이 반복되지만, 귀로 들었을 때 이렇게 악기의 음색을 통해서 연주의 순서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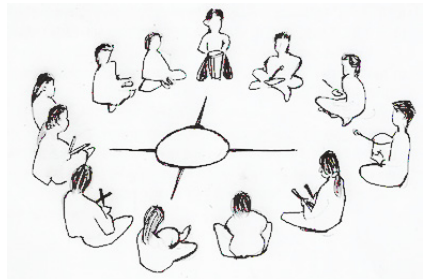
2) 악기와 함께 놀이형태로 신체표현 하는 수업활동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Indo eu’ 춤 동작이지만 3~4학년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춰 본 경험이 적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 음악 듣고 가락의 흐름 구별하기

학생들은 바닥에 원형으로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에 다른 가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 손을 들도록 과제를 준다.

A부분에서는 가볍게 손으로 바닥을 두드린다. B부분은 교사가 의 리듬패턴을 손뼉치기로 반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학생들은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다. 음악을 반복하여 들을 때 학생들은 교사의 손뼉치기 반주를 천천히 모방한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이 B부분의 가락을 좀더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즉, 바닥을 두드린 동작과 손뼉치기 동작은 이 곡을 악기로 연주하도록 준비해주는 과정이며, [Figure 4]처럼 자리를 배치한다.



[Figure 4] Indo eu'a formation ready for physical expression

태양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동그란 굴렁쇠와 햇살을 나타내는 막대를 노란색이나

붉은 계열의 색으로 된 테이프로 감싸 준비할 수도 있다. 전주에서 학생들은 정해진 악기의 위치에서 제자리에 서있다. A가락이 연주되는 동안 핸드드럼 연주자들은 시계바늘이 가는 방향으로 햇살 쪽으로 걷는다. 이때 핸드드럼으로 2박자의 일정박을 연주한다. B가락이 연주되는 동안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있다. B가락에서는 나무관북이나 리듬막대를 가진 학생들이 작은 보폭으로 4걸음을 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뒷걸음으로 되돌아온다. 이때 위에서 연습했던 $\frac{2}{4}$ 리듬을 연주한다. A가락이 연주될 때 B가락을 연주하는 학생은 제자리에 서있다. 이 활동은 반복된다.

(5) 심화활동: 전통적인 춤의 형태 따라하기²⁾

A부분: 학생들이 원형으로 서서 V자 형태의 팔모양으로 손을 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16걸음 걷기

B부분: 오른쪽 방향으로 점선 표시된 부분은 상체를 낮춰 4걸음, 실선 표시된 부분은 상체를 올려 4걸음 걷기

A'부분: 제자리에서 1-2마디 점선 부분은 두 명을 마주보게 돌아서 파트너와 손뽕치기, 3-4마디 실선 부분은 두 명씩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서 새 파트너와 손뽕치기, 이후 반복하기

B부분: 동일하게 반복하기

일정박에 걷는 동작이 익숙해지면 8분음표와 4분음표에 맞는 발걸음으로 응용하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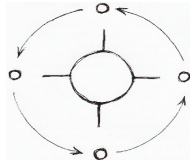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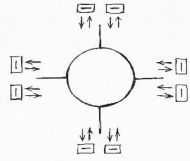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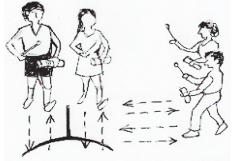
[Figure 5] The part where 'Indo eu' has the same melody.

3) 악기 연주와 함께하는 신체표현의 개요

‘Indo eu’를 이동하며 연주할 수 있는 악기와 함께 신체표현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2) 여기에 제시된 악보의 표기와 전통적 춤형태의 활동 내용은 이희숙, 인혜 로젠슈타이너, 2013, p. 214-2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악보는 새로 그리고, 활동 내용의 서술도 재구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악보, 글 및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개요의 표기 예시는 아래의 [Figure 6]과 같다.

Melody	1) Present music score
	2) Explain in writing
	3) Present as a picture
A	
	The student playing the hand drum walks towards the sun. Repeat.
B	 
	Students playing wooden drum drums or rhythm bars walk four steps forward and four steps back. repeat
Notes	 
	Students can freely choose the types of instruments they play with in their hands. Nevertheless, allowing instruments of the same or similar material to be grouped together can help to distinguish the melody and also help unify the direction of movement. 

[Figure 6] Outline of body movements with instruments in ‘Indo eu’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동요 및 민요를 신체표현 활동을 통해 악곡의 문화 배경지식과 색다른 춤 또는 움직임의 방식을 경험하기 위한 지도방

안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행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동요와 민요에서 문화적인 정보를 얻고 정서와 관련된 움직임 또는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재곡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크-달크로즈와 오르프의 신체표현 지도이념과 내용을 배경으로 초등학교 음악과 신체표현에 조예가 깊은 독일의 그로쎄-예거의 지도 원리를 고려하여 춤곡의 사전정보 - 단계별 수업 진행 - 춤 형태의 표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다문화 신체표현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에서 다문화 동요와 민요를 통해 문화적 소통과 음악적 즐거움을 좀더 공유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의 춤곡('Indo eu' 곡)을 선정하여 그 수업활동을 단계적으로 설명해보았다. 민족마다 노래와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노래 부르거나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서 기꺼이 혹은 놀이형태로 다문화간의 소통과 공감에 접근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다양한 문화권의 동요나 민요와 관련하여 놀이형태의 신체표현 활동이나 민속춤을 추는 활동은 대개 그 곡의 유래 및 배경에 관한 정보가 왜 그런 동작을 취하는지 이해하게 해준다. 교사는 이를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이해는 우리의 감정을 진지하고 풍요롭게 해준다. 물론 신체표현 동작의 구성에 리듬꼴과 가락선 그리고 악곡 형식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학습활동은 중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음악교육은 타문화를 존중하고 공감 및 이해하는 음악수업으로서 상호 문화적인 소통과 음악적인 지식 및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의 즐거움도 배가되기 마련이다.

Reference

- Bang, K. J., & Kim, Y. H. (2007).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employing four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Centering on Chinese Korean music-. *Music and Korea*, 33, 305-337.
- Chang, E. U. (2015). A development of music program for chorus vitalizing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2), 141-162.
- Choi, E. S. (2020). A study on the design of music-focused creative convergence program using the thinking tool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2), 177-196.
- Choi, M. Y. (2008). Considerations on body movements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 177-202.

- Funk, J., Grüner, M., Kotzian, R., Nykrin, R., Perchermeier, C., Schrott, U., & Widmer, M. (2013). *Music and dance for children: Teaching materials for basic music education teacher's guide 1st year*. Translated by Lee, H. S., & Rosensteiner, I. H. Gyeonggi-do: Samhomusic & Schott.
- Große-Jäger, H., Ganslandt, F., Merz, H., & Seippel, E. (1992). H. Große-Jäger (Hersg.) *Tanzen in der Grundschule*. Fidula-Verlag. Salzburg.
- Hyun, K. S. (2006).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music aptitude and movement abi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0, 249-279.
- Indo Eu(Song & rhymes from Portugal). Retrieved 01. 12. 2020. from <https://www.mamalis.com/?t=es&p=295>
- Ju, D. C., & Cho, H. I. (2004). Multicultural approach of the music textbooks in Korea - Focused on the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3, 263-282.
- Lee, S. Y. (2009). Study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movements in dancing and musical factors. *The Journal of Total Arts and Music*, 3(2), 21-52.
- Lee, Y. K., & Jin, J. A. (2010). Music teaching approach based on body movement using piano pieces. *Research in Music Pedagogy*, 6, 101-126.
- Maruhn, H. (1997). *Musik, Bewegung und Tanz in der Grundschle. Gedanken zur Fächerintegration und Anregungen zur Unterrichtspraxis*. In *Musik in der Schule*. Pädagogischer Zeitschriftenverlag. Heft 4. 170-174.
- Min, K. H. (2009). Necessity and role of music education as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7(1), 93-111.
-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Seung, Y. H., Yang, J. M., Lee, Y. K., Rim, M. K., Jang, K. B., Cho, S. I., Ju, D. C., & Hyun, K. S. (2010).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 Oh, J. H., & Cho, H. Y. (2019).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music learning cont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music textbooks.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4(2), 23-46.
- Park, J. M. (2010). The effect of the body movement activity with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dancing in elementary traditional Korean music class. *Music and Korea*, 39, 345-367.
- Park, S. Y. (2006). A study on lesson plans applying dance pieces to improve students`

rhythmic sense -with a focus on third grader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4(1), 69-88.

Rim, M. K., Hyun, K. S., Cho, S. I., Kim, Y. H., & Rhee, E. (2009). *Music Teaching Method*. Seoul: Hakjisa.

Yun, G. K. (2019). An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music listening activities and other subjects in the elementary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ion of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207-221.

[Textbooks]

Cho, S. I., Ju, D. C., Kang, J. W., Kim, H. S., Kim, E. J., Lee, K. S., Kim, S. A., Jung, I. J., Han, S. M., Chae, S. H., & Byeon, I. J. (2019a).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Visang.

_____ (2019b). *Music textbooks for grade 5-6*. Seoul: Visang.

Hong, J. G., Song, T. D., Yang, S. Y., Kim, M. J., Lee, J. Y., Im, H. J., Moon, M. A., Kim, H. A., Kim, G. M., & Song, S. G. (2019a).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YBM.

_____ (2019b). *Music textbooks for grade 5-6*. Seoul: YBM.

Jang, K. B., Kang, Y. S., Gwon, B. R., Kim, K. M., Kim, K. J., Kim, K. H., Kim, J. N., Min, H. Y., & Jung, M. Y. (2019a).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MiraeN.

_____ (2019b). *Music textbooks for grade 5-6*. Seoul: MiraeN.

Kim, A. K., Kim, H. J., Hong, J. H., Kim, J. I., Jung, E. Y., Ham, M. H., Cho, K. S., Jung, I. Y., Kim, E. H., & Lee, S. Y. (2019a).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Chunjae.

_____ (2019b). *Music textbooks for grade 5-6*. Seoul: Chunjae.

Kim, Y. H., Hyun, K. S., Heo, M. G., Kim, D. S., Lee, M. Y., Shin, H. S., Lee, J. Y., & Lee, C. M. (2019a).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Kumsung.

_____ (2019b). *Music textbooks for grade 5-6*. Seoul: Kumsung.

Seog, M. J., Choi, M. Y., Kim, Y. J., Choi, Y. R., Jang, E. S., & Jung, J. H. (2019a).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Donga.

_____ (2019b). *Music textbooks for grade 5-6*. Seoul: Donga.

Yang, J. M., Kim, E. Y., Park, J. H., Kim, D. H., Park, J. Y., Lee, D. H., & Kim, E. J. (2019a). *Music textbooks for grade 3-4*. Seoul: Chunjae Textbook.

_____ (2019b). *Music textbooks for grade 5-6*. Seoul: Chunjae Textbook.